주요 대기업 신입공채 '개막'… 온라인 적응에 취업 성패

온라인·비대면 평가 자리잡아
삼성, 14일까지 지원서 접수
KT·LG, 인턴십으로 신입모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하반기 주요 대기업이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다. 삼성, 포스코, CJ, LS는 그룹 공채를, LG와 KT는 수시채용을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신입 개발자 공채에 나섰다. 상반기 시험대에 올렸던 온라인 및 비대면 평가가 보다 자리 잡은 것이 특징으로 구직자들은 각 기업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채용절차에 적응하는 것이 합격 키워드일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하반기 신입모집에 나선 주요 기업의 채용 소식을 전한다.

먼저 삼성이 7일 하반기 3급 신입사원 모집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전자계열사를 비롯해 등 21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직무적성검사 및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CJ도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다.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등 6개사가 참여하며, 마감일정 및 모집절차는 회사별로 다르다. 구직자는 인턴십 형태의 '직무수행능력평가'와 직무 실무 평가인 '직무 Fit' 테스트를 치루게 되는데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대졸신입 모집 기업〉

그룹사	모집구분	모집기간
삼성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9/7~9/14
포스코	하반기 채용	8/31~9/18
CJ	신입사원 모집	9/7~ 개별사별 상이
KT	대졸인턴 모집	9/7~9/20
LS	하반기 LS그룹 채용	9/14~10/5
현대오일뱅크	대졸 신입사원 모집	9/7~9/21
네이버	신입 개발자 공개채용	9/4~9/18
카카오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채용	모집마감 (8/24~9/7)

* 위 사항은 기업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크루트

포스코는 3개 계열사에서 이미 지난달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모집 분야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 마케팅, 구매, 재무, 경영지원 등으로, 오는 18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일부 계열사는 필기시험이 인공지능(AI)역량검사로 대체된다.

KT와 LG는 올 초 공채 폐지 이후 현재 인턴십을 통해 신입 모집 중이다. 먼저 KT는 ▲마케팅&세일즈 ▲네트워크 ▲IT(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대졸 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두 달여간 실무교육과 현장 인턴십을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자에 한해 임원면접을 실시해 이후 신입사원으로 선발된다.

같은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공모전을 통해 인재선발을 할 계획이다. 디자인, UI UX, 고객 리서치 분야에 해당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객 가치 발굴'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이후 수상자는 인적성 검사, AI 영상 면접, 1차 면접, 그리고 인턴십 수행 이후 최종면접을 거쳐 내년도 신입사원(LSR/UX담당)으로 입사한다.

이 외에도 현대오일뱅크도 7일부터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고, SK와 LS는 이달 14일원서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IT 양대산맥 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신입 개발자 영입 중이다. 먼저 카카오는 지난달 '2021 신입 개발자 공개채용' 모집을 시작해서 7일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공채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총 8개 관계사에서 동시 진행되며 지원자는 최대 2지망까지 희망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4일 신입개발자 공개채용을 시작해 이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입 개발자 공개채용은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웍스모바일 ▲스노우 ▲네이버웹툰 ▲네이버파이낸셜 등 6개 법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FE, iOS, Android, BE(AI/ML 포함) 부문에서 신입 개발자를 선발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신대 강인철 교수 우수학자지원사업 선정

한신대는 강인철 종교문화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2일 한국연구재단 '2020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총 2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우수학자지원사업은 한국을 대표할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학자를 지원·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7명이 최종 선정됐다.

강인철 교수는 우수학자지원사업으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와 쟁점'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현진 기자

다시 불붙은 등록금 반환… 학생권리침해 vs 대학재정악화

코로나 재확산에 2학기도 원격수업
2학기 등록금 감액 학교 33%에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붙은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2학기 개강과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2학기도 원격수업으로 시작하면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85개 대학이 2학기에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153개 사립대학의 55.6%를 차지한다.

특히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비대면 강의 기간은 대학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다수의 대학교가 2~3주 정도 기간을 전면 비대면 강의로 진행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학사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등록금 반환 촉구 현수막 /뉴시스

이처럼 2학기가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최근 알바몬이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절반에 달하는 48.3%의 학생이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한 데 이어 '졸업에 꼭 필요한 강의만 대면 진행해야 한다'(45.9%)는 등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이에 대한 등록금 반환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은 움직임에 돌입했다. 연세대 학생들로 구성된 '2020 연세 교육권 지킴이'는 8일 의견문을 내고 "학교는 코로나19 재난 학기 선포 이후 침해받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대학원생들도 온라인 수업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네트워크(대학원총학넷)는 교육부의 대학원생 배제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지원이나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가에 등록금 반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지만, 대학들은 아직 2학기 등록금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한 학교는 33.1%로 조사돼 3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1학기 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 등록 인원이 50% 이상 대폭 감소한 데다, 등록금 반환으로 추가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학습경험공유 UCC 공모

세종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경험공유 UCC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세종대 정규 교과목 중 공유하고 싶은 강의 소개 ▲주요 자격증, 어학시험 관련의 학습경험 공유 ▲취업 활동 관련 학습 경험 공유 ▲기타 본인의 특별한 학습 경험 공유이다.

공모형식은 3분 이내의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MP4 파일이어야 하며 해상도는 1280x720(HD급) 이상이다.

지원 접수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제출은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이전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사 경고를 받지 않은 학부 재학생이다. 지원은 개인 또는 5명 이하의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개성공단 청년아카데미 홍보이미지 /건국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8주간 청년아카데미 개최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주간 '건국대 개성공단 청년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김성민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의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 개선공단'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와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비대면 강의를 접목해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ECCV' 로봇비전챌린지 2위

〈유럽컴퓨터비전학회〉

인하대는 송병철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컴퓨터비전 학술대회인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가 주관한 로봇비전챌린지에서 확률기반 사물검출기로 2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송병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확률기반 사물검출기는 연구 수준을 넘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송 교수팀이 개발한 검출기는 도메인 변환, 후처리 기법 등으로 불확실한 결과를 차단해 신뢰할 만한 검출결과를 추려내고 오검출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적은 횟수의 추론만으로도 물체를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검출 시간도 단축했다. /이현진 기자

ECCV 로봇비전챌린지에서 수상한 송병철 교수 연구팀.(왼쪽부터) 이승현(박사과정), 최재웅(석사과정), 이성욱(석사과정), 송병철 전자공학과 교수. /인하대

서울교육청, 유·초·특수교사 464명 선발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서울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 교사를 464명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2020학년도에 617명을 선발한 것과 비교해 153명(25%)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의 2021학년도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립 교사는 교원의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감축 등이 반영돼 올해(2020학년도) 선발인원보다 153명(24.8%) 줄었다.

부문별로는 유치원교사 선발인원이 90명으로 올해보다 13명 감소했고, 초등교사는 304명으로 66명 줄었다.

유치원 특수교사는 15명으로 올해보다 43명, 초등 특수교사는 55명으로 올해보다 31명 각각 줄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6개 사립학교법인에서 1차 시험을 위탁받아 ▲초등 3명 ▲특수(유치원) 2명 ▲특수(초등) 6명 등 사립 교사 11명도 선발한다. /이현진 기자